



Issue Commen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07월 09일

인투셀(287840)

Not Rated | CP 38,800원

에이비엘바이오(298380)

Not Rated | CP 66,200원



Analyst 김선아 seon.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07월 10일 | 산업분석_Update

제약/바이오 산업 코멘트

에이비엘바이오-인투셀 기술반환(특허이슈) 코멘트

공시 내용: 인투셀 플랫폼(Nexatecan)의 특허 침해 가능성 문제로 계약 해지

2024년 10월 23일 인투셀과 체결한 플랫폼 기술 도입 계약을 해지함. 해지 사유는 인투셀의 Nexatecan 플랫폼이 제3자의 특허 침해 가능성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 해당 특허는 중국 특허(또는 출원)이고,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FTO 분석 단계에서 가능성만 제기된 것이고, 침해 소송 등이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님.

에이비엘바이오 측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

기술 도입시 지급한 계약금(14억원으로 추정, 기사 참고)은 환수가 불가능함. 이를 제외하고 현재 개발 중인 주요 ADC파이프라인은 모두 시나픽스(Synaffix)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R&D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인투셀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은 현재의 기업가치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인투셀 측 영향: 대표기술인 OHPAS가 문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다행

인투셀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세 개임. 링커인 OHPAS, ADC의 암특이성을 높여주는 PMT, 페이로드 세트인 Nexatecan. 에이비엘 측 언급에 따르면 이 중 Nexatecan이 문제된 것으로 보임. OHPAS는 다양한 페이로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기술 구현에 있어서 Nexatecan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PMT도 옵션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 Nexatecan 플랫폼만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 대표기술인 OHPAS가 문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함.

Nexatecan의 특허 침해에 관한 상황 예측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특허의 번호와 후보물질(30종 이상)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비교할 수 있음. 현재 특허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양사 비공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함.

(뒷 페이지 상세)

파트너(에이비엘바이오)가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그 사이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인투셀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보이니,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려 볼 것.

Nexatecan의 특허 침해에 관한 상황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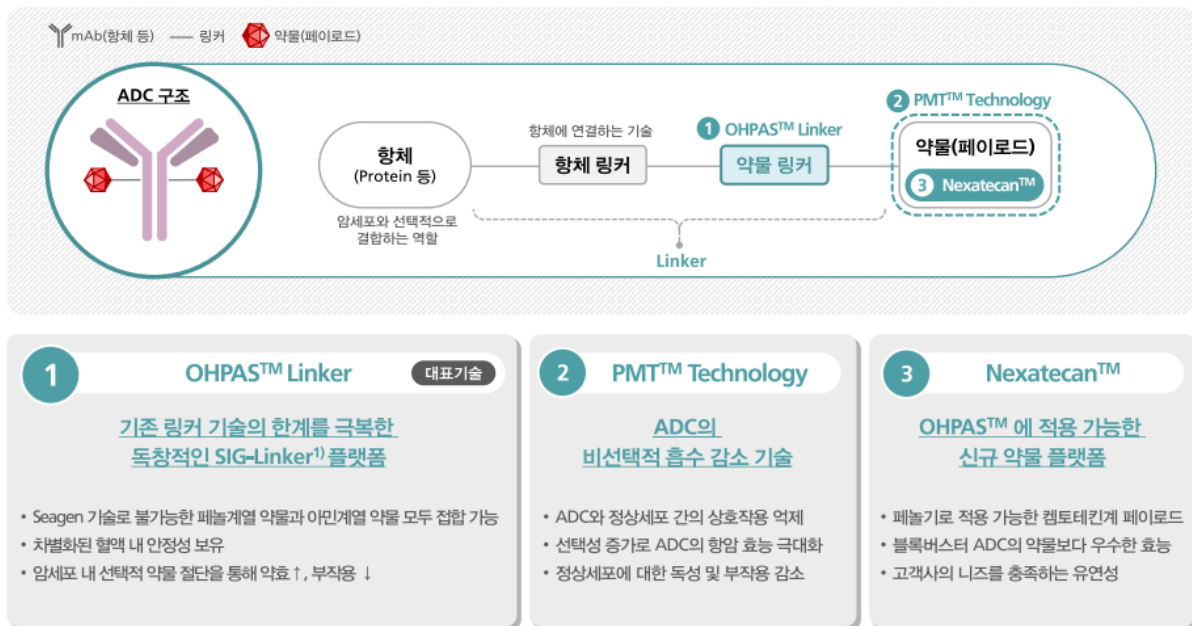
- 1)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 후에 공개됨. 심사 후 등록까지는 기술과 당국의 특허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원일 기준으로 3~4년은 소요됨. 2024년 10월 23일에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심사 중일 가능성도 있음. 즉, 등록 전의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 상태인지, 등록이 된다면 Nextaegan이 침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명확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술이전 한(에이비엘) 측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음.
- 2) 발견된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 FTO시 등록 가능성도 평가함. 등록 가능성을 평가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Nexatecan은 하나의 물질이 아닌 30종 이상의 후보물질을 포함한 플랫폼인 것을 고려해야 함. 물질 하나하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후보물질이 전부 침해인 것은 아닐 수 있음. 만약 비침해로 판단되는 후보물질이 약효나 안전성도 확보했다면 특허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음.
- 3) 문제된 중국 특허가 중국에만 출원된 것인지, 타 국가에도 출원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지게 됨. 중국에만 출원되었고 타 국가로 갈 가능성이 없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중국에서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엔 파트너의 니즈에 맞추므로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음. 다만 플랫폼인 이상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봄.
- 4) 한 가지 의문점은 인투셀이 IR 자료에서 Nexatecan의 기본 구조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공개되어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선행기술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를 무효/등록저지 할 수 있음.

도표 1. 에이비엘바이오 홈페이지 전문

금일 공시된 기술도입 계약 해지 공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ADC 플랫폼 기술(넥사테칸)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1)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신물질을 개발할 경우 특허를 확보할 수 없게 되거나 2)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함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허 이슈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약물의 중국 특허가 선행하여 Publish 되어 있음을 최근 확인하며 발생했습니다. 해당 특허의 출원 후 비공개가 보장되는 기간(18개월)에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으나, 특허 이슈가 확인된 이후에도 상응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넥사테칸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당사는 특허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연구개발을 강행할 시에는 주주가지 훼손 및 시장 내 신뢰도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의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으나 악화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양사 주주 모두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고자 계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 중인 ABL206 및 ABL209를 비롯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들의 경우, J&J, Amgen, Boehringer Ingelheim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시나픽스(Synaffix)의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ABL206 및 ABL209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IND 제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일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하나증권

도표 2. 인투셀의 플랫폼



1) Self-immolative Group Linker: pH, 효소에 의해 이중 절단되는 링커

자료: 인투셀IR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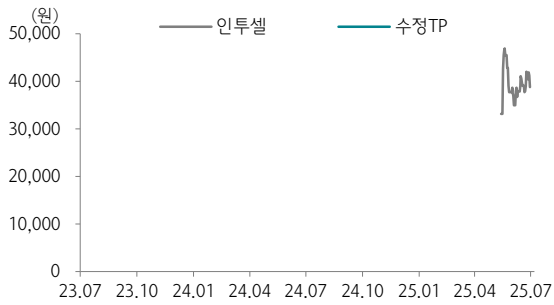
도표 3. HER2 항체와 항암 약물 접합 테스트 결과 (유방암 등 6종의 세포주 대상)

적용 약물 종류	약물명	작용 기전	Seagen (VC-PABC) 기술	인투셀 (OHPAS™) 기술
Auristatin 계열	MMAF (아민계)	세포분열 억제	○	○
	Auristatin F (3차 아민계)		○	○
Amanitin 계열	α-amanitin (페놀계)	mRNA 합성 차단	X	○
PBD 계열 약물	dBPD (아민계/페놀계)	DNA 복제 억제	△ (아민계 한정)	○ (페놀계 포함)
	dtBD (아민계/페놀계)		△ (아민계 한정)	○ (페놀계 포함)
Duocarmycin 계열	CBI indole (아민계/페놀계)	DNA 손상 유도	△ (아민계 한정)	○ (페놀계 포함)
	dcBI(아민계/페놀계)		△ (아민계 한정)	○ (페놀계 포함)
기타	Phenpanstatin(페놀계)	유전자 발현 조절	X	○

자료: 인투셀IR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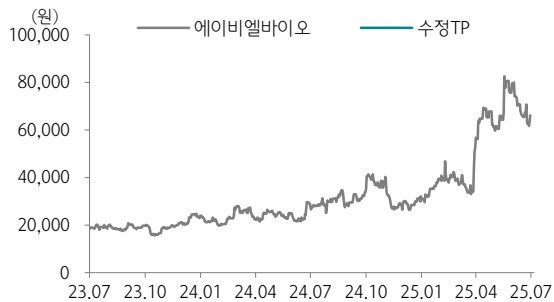
인투셀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10	Not Rated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이비엘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7.10	Not Rated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7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5년 7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45%	4.55%	0.00%	100%

* 기준일: 2025년 07월 07일